

기초 공연예술 지원 강화해야

이창윤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장

culture | art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적 지지 강화 리는 예술극장의 경영목표 아래 예술극장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온 개선 방향은 첫째, 공연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관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이다. 셋째, 공간 및 시설 개선이다. 넷째, 극장 운영기반 조성이다. 다섯째, 극장 운영체계 개편이다.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의 현황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이하 예술극장)은 다중 이용시설로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4년도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공사를 추진하였다. 객석 천정, 조명 실링, 조정실 천정을 교체하여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였으며 객석의자도 일괄 교체하여 변화된 시민들의 체격 조건에 맞는 쾌적한 객석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어린 자녀로 인하여 공연장을 찾을 수 없었던 시민들을 위하여 보금자리라는 이름의 모자방 시설을 구비하여 사전에 예약만 한다면 3세 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극장은 '창조적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제공'과 '양질의 예술문화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기여'라는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경영목표에 담고 있는데, 첫째는 '공공극장으로서의 공익적 책임경영 체제 구축 -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적 지지 강화'이며, 둘째는 '최우수 문화공간으로서의 극장 브랜드 가치 구축'이다.

최근 20여 년간 공연예술계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도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지만, 공공성과 함께 자본의 논리에 억눌려 힘겨워 하는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지지를 그 임무로 분명하게 천명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해 가는 극장은 예술극장이 유일하다고 본다.

예술극장이 개관하였던 1981년은 공연계로서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해이다. 문예진흥원과 국제문화협회가 공동주최하고 ITI한국본부가 주관하는 제5차 제3세계 연극제가 문예회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행사에는 서구의 연극계 인사 및 공연단체와 함께 공산권의 극작가 및 비평가들이 참여하여서 당시로서는 매

우 파격적인 행사였다. 이와 함께 이해에는 문예회관의 개관과 공연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평론가 이태주는 1981년 『문예연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연 면에서 1981년이 이룩한 중요한 이벤트는 문예회관이 개관되었다는 일이며, 우리 연극의 목은 숙제의 한 가지였던 공연법이 개정되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연극계는 일제시대의 유물이었던 공연취체법의 억압 속에서 법적으로 보호 육성되지 못했던 과거의 침통했던 연극 환경으로부터 밝은 내일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소극장 공연과 타성에 저항하는 젊은 연극인들의 소극장 실험극 운동이 공연육성법으로서의 공연법의 보호를 받으며 햇빛을 보게 되었으니 1981년의 연극계의 희소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일제의 유물인 공연취체법을 거론하는 글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당시 공연장은 서울 시내에 24개가 있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극공연장 연혁 (1981년 12월 말 현재)

극장명	개관연월	대표자	소재지
드라마센터	1962.4	심재순	중구 예장동
국립극장 대극장	1973.10	문공부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소극장	1973.3	문공부	중구 장충동
유관순 기념관	1974	이화여고	중구 정동
실험소극장	1975.9	김동훈	종로구 윤니동
세종문화회관 별관	1975.11	서울시	중구 태평로
창고극장	1976.4	이원경	중구 저동
세실극장	1976.5	임석규	중구 정동
공간사랑	1977.4	김수근	종로구 원서동
코리아극장	1977.10	우상원	중구 명동
창고극장	1976.4	이원경	중구 저동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78.4	서울시	중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1978.4	서울시	중구 세종로
엘칸토예술극장	1978.7	김용훈	중구 명동
민예소극장	1979.3	허 규	서대문구 대현동
송의음악당	1979	송의여전	중구 예장동
싸롱秋	1980.4	추송웅	중구 명동
운현소극장	1980.11	김동훈	종로구 윤니동
드라마소극장	1981.2	심재순	중구 예장동
에저뜨리허설극장	1981.3	방태수	서대문구 아현동
뉴코아예술극장	1981.3	한신공영	강남구 반포
101스튜디오	1981.3	김의경	서대문구 신촌
문예회관 대극장	1981.4	문예진흥원	종로구 동숭동
문예회관 소극장	1981.4	문예진흥원	종로구 동숭동
서라벌소극장	1981.11	김정택	서대문구 대현동

▶자료 : 1981년 『문예연감』

이 기록에 의하면 서울 시내 소재 공연장은 24개에 불과하며 전체 공연장의 29%인 7개의 공연장이 1981년도에 개관하였다. 이중 5개가 소극장이라는 것에서 당해연

도에 이루어진 공연법 개정의 효과를 짐작하게 한다.

둘째로, 대부분의 공연장이 중구와 종로구에 소재해 있고 동숭동(대학로) 지역에는 문예회관(현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을 제외하고는 공연장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요즘, 다수의 공연장에서 활발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 지역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공연장이 시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 지역에 새로이 뉴코아 극장이 개관함으로써, ‘문화 불모지역’이었던 강남에 연극 인구를 포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981년 『문예연감』). 산간 오지가 아닌 서울 강남 지역도 당시에는 문화 불모지역에 불과한 형편이었다는 것이다.

1981년 서울 시내 공연장에서 공연된 작품수는 189편이고, 총 관객수는 51만 9,368명이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공연예술의 진흥과 공연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공간을 확보,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수 예술단체들에게 저렴한 대관료를 받고 창작 발표공간을 제공해 주는 간접 지원시설 조성이라는 취지 하에 우리 예술극장이(개관 당시는 ‘문예회관’) 1981년 4월 1일에 개관하였다.

이후, 예술극장은 1999년도 기획공연 시작, 2001년 9월 관객리포터제 도입, 2002년 4월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으로의 개명, 2004년 대극장 리노베이션을 거쳐, 2005년도에는 자체예매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공연예술 전문공간,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예술극장에서는 년 평균 858회 공연이 진행되어 평균 169,469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으며 매년 <서울공연예술제>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서울국제청소년공연예술제> <국제현대무용제(Modafé)> 등 다양하고 우수한 축제가 펼쳐지는 ‘공연예술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극장아 노을자> 등 다양한 예술교육프로그램과 전국 시·도 산하 공연장의 지역 무대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제식 현장실습 프로그램, 신진 무대기술인(인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예술극장의 시설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극장은 1,2층 총 608석(휠체어석 6석 포함)의 부체형 객석과 프로시니엄(액자틀) 무대로 이루어져 있다. 대극장은 작품이 가진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풍부하게 표현할

최근 20여 년간 공연예술계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도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을 다수 보유하게 되었지만, 공공성과 함께 자본의 논리에 억눌려 힘겨워 하는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지지를 그 임무로 분명하게 천명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해 가는 극장은 예술극장이 유일하다고 본다.

Art Theatre

수 있는 50여 종의 조명기와 효과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컴퓨터 콘솔과 524개의 디머·채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상 기능과 외국어 자막 기능, LCD 프로젝터를 구비하고 있으며 각종 디지털 플레이어와 아날로그 플레이어 및 무선마이크(18ch)를 보유하여 다양한 공연을 수행할 수 있다. 무대를 신속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회전무대는 직경 12m로 양 방향으로 회전하며 최고 속도가 50초까지 가능하다. 3.4m 깊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는 무대하부까지 도달하는 데 1분 51초가 소요되며 16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1층에 위치한 보금자리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극장은 폭 11.8m, 깊이 15.4m, 높이 4.9m의 직사각형 상자형 공간으로 공연에 따라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으며 150석 내외의 좌석을 마련할 수 있다. 소극장에는 272회회의 디머와 수동 및 메모리 조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스튜디오식으로 배열되어 있어 창의적이고 풍부한 빛과 색으로 연출가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최신 기종의 디지털 플레이어와 소극장 무대에 적합한 6개의 이동식 스피커가 구비되어 있어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을 위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한 미술작품들로 꾸며진 로비는 항상 개방되어 시민들에게 공연정보센터와 교류장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방과 물품보관소, 카페 등이 운영되어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배려하고 있으며 최신식 CCTV 시스템을 갖추어 고화질의 PDP(벽걸이 TV)모니터로 로비에서 공연현장을 관람할 수 있다. 출연자들의 휴식공간인 분장실은 대극장 6개, 소극장 2개

가 갖추어져 있는데 무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모니터가 마련되어 공연자의 출연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좋은 공연을 만들고자 하는 공연자들을 위하여 82평의 연습실을 구비하고 있어 공연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술극장에서는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581회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총 4,067,245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현장 공연예술인들이 예술극장에 거는 기대와 희망사항

1981년도 예술극장(당시 문예회관)의 개관은 우리 공연 예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개관 첫해부터 문예회관 대극장은 관객동원 실적 1위를 기록하여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입증하였다(1981년 『문예연감』). 또한 예술극장을 중심으로 동숭동 일대에 다수의 소극장들이 자리 잡게 되고 공연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동숭동은 공연예술 활동의 중심점이 되어 갔다. 1985년도부터 동숭동 일대는 대학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현재 45개의 극장이 밀집되어 연중무휴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공연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예술극장 개관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현재 공연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03년도 기준으로 서울시내 각 공연장에서는 연간 579건의 연극 공연과 278건의 무용 공연이 발표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연극 1,924건, 무용 758건의 공연이 이루어졌다(2004년도 『문예연감』). 이와 같은 공연계의 괄목할 만한 질적, 양적 발전에 대해 예술극장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예술극장은 우리

공연예술이 발전해 온 24년간 우수 무대예술 가들이 선호하는 발표의 장이 되어 왔고 대학로라는 공연예술의 중심점을 형성하는 핵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술극장을 향한 시대적 요청일 것이다. 현장 공연예술가들이 예술극장에 대하여 갖는 바람에 관하여 들어 보았다.

연극연출가협회 심재찬 회장은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술극장마저 독립채산제가 되거나 재정자립도의 압박으로 인해 대관료 등,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면 현장예술인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이다. 기초 공연예술을 지지하는 유일한 극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소신에 의한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임운영체가 되어야 한다. 기획공연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업신을 전제로 하여 대관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연기획자인 김성희 가네샤 프로덕션 대표도 같은 의견이다. “예술극장은 공공극장의 마지막 보루이다. 예술극장이 공공성을 잃으면 안 된다. 대관료가 높아지면 안 된다. 예산규모 확대 등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책임운영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런 조건하에서는 누구라도 운영 개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공연장에서의 재정자립도 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무용평론가인 문화일보 김승현 기자의 생각도 일치하고 있다.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은 공연예술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기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책임운영이 된다면 재정자립도 제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50%, 다음에는 모 공연장과 같이 75%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쓰게 될 것이며, 이는 대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운영체계의 변화는 이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장예술인들이 예술극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대는 ‘공공성의 유지’ 이고,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가 유지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들이 예술극장의 제1 목표인 ‘공공극장으로서의 공익적 책임경영 체제 구축 -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적 지지 강화’와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반 관객들은 예술극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2003년 12월에 예술극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예술극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2002. 11. 15~12. 31, 예술극장 관람객 1,420명 대상 조사)결과를 살펴보자. 예술극장은 세종문화회관, LG아트센터, 국립중앙극장과 비교에서, 접근성, 공연장 주변 분위기 등 입지 조건과 직원들의 친절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공연작품의 우수성, 공연장의 유명도, 공연시설의 우수성, 공연장 부대시설 등에서는 중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예술극장의 운영개선의 방향이 기존의 기초 공연예술 활동을 위한 대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우수 작품의 능동적인 발굴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적이며 수동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특화된 공공 공연장의 이미지 구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극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상과 같은 시대적 요청에 대해 예술극장은 귀기울여야 할 것이며 개선을 위해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예술극장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온 개선의 방향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공연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기획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공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시즌별, 공간별(대, 소극장), 주체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관작품에도 방향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지지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예술극장 운영방향 및 세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여 이에 부합하는 공연들이 대관 신청에 응모

1981년도 예술극장(당시 문예회관)의 개관은 우리 공연예술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개관 첫해부터 관객 동원 실적 1위를 기록하여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입증하였다. 또한 그 일대에 소극장들이 자리 잡게 되고 공연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동송동은 공연예술 활동의 중심이 되어 갔다.

The Public Good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하도록 하는 안, 기획성을 강화한 작품 공모, 작품 간 연계 등을 통한 축제형식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관심의 시에도 인터뷰 심사를 확대하여 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단체별 공연실적 평가 자료를 대관심의에 적극 반영하는 평가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관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이다.

예술극장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온라인 티켓 예매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 중 가동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객설문조사 결과를 관객개발 및 공연작품 기획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회원제가 2005년 상반기 중 가동될 것이다. 예술극장 이미지 강화를 위한 예술극장 CI 개발 (각종 표식, 안내판 디자인 개선 및 통일성 부여), 극장 외벽 간판 설치, 공연정보지, 대학로 주변 안내판, 지도, 대중교통수단 활용 홍보 등이 계획되어 있다.

셋째, 공간 및 시설 개선이다.

공연 시설 장비 현대화, 극장 환경 및 공간 활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성화장실 증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넷째, 극장 운영기반 조성이다.

예산 확충과 인력 보강(기획, 홍보/마케팅, 무대스텝)이 필수적이다. 극장도 자체적으로 수익모델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극장 운영체계 개편이다.

자율권(인사, 예산)과 성과평가를 요체로 하는 책임운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운영체계 개편을 위하여 운용 예산의 증액, 인력의 확충 등 체질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체질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책임운영제 도입에 관해서는 현장 공연예술계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아울러,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예술감독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적 지지 강화’라는 예술극장의 경영목표에 대하여 현장예술가들도 분명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예술극장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예술극장 운영체제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고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예술 현장에서 지적과 같이 예산 증액, 인력 보강 등 실질적인 체질 강화가 선행되어,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공공극장인 예술극장이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